『기독교사회윤리』 제10집
(2005) 153~18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회의 과제*

조 용 훈
(한남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I. 서론
II. '지역문화'(local culture)란 무엇인가?
III. 지역문화 위기의 원인들
IV.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문화 현실
1. 지방자치와 지역문화
2. 지역문화와 향토축제
3. 향토축제의 문제점들
V.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운동
VI.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신학적 과제
1. '지역교회'(local culture) 로서 교회
2. 문화의 신학
3. 토착화신학
4. 사회봉사의 신학
5. 문화선교의 신학
6. 에큐메니칼 신학 및 종교간 협력
VII.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교회의 실천적 과제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4-002-A00039)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church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culture. Local culture defined as a shared set of beliefs, customs, and ideas that held residents in a certain region together in self-identified groups. Local culture plays a key rol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make a community. However, local culture in Korea has been destructed by Japanese rule, modernization, urbanization, and now threatened by globalization. As the inaugur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1995 in Korea, more 1,000 local cultural festivals as the highlight of local culture held in nationwide. But they have many problems like as commercialization, uniformization, and alienation of the residents etc.

What is the tasks of the local church for the revival and improvement of local culture? First, we need the theology of the local church. A church is universal as well as local. Every Church is finding its place in the local culture and its congregation are mostly residents in a certain region. In this background, the branch church strategy for the church growth by a mega church is to be criticized. Second, we need the indigenization theology. Originally Korean culture stood apart from Christianity. For this reason there was conflict between Church and the local culture when Christianity was first introduced into Korea. Every local culture are rooted in traditional culture, we should make a great efforts to reconcile Christianity with the traditional culture and make harmony. Third, we need the theology of culture and the theology for culture. Culture is nothing but a means of evangelization by the church but also the missionary goal. Therefore we need to the theology that interpret the meaning of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gospel. And every church has to be equipped its members to take the responsibility of cultural mandate in this secular world. Last, we need the refine strategy for the culture mission of the church. The church should be open its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to the local community. And the finding and training the experts for the culture mission, the developing the historic and cultural site related to the Christianity, and the construction of the church building with an aesthetic value are included to the tasks of the local church.

Keywords: local culture, community, globalization, indigenization, theology of culture

Ⅰ. 서 론

최근 들어 문화, 특히 '지역문화'가 학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자본이 되는 '지식기반의 시대'요, 문화가 경제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시대'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민정부의 등장과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한국사회의 관심사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늘면서 문화 창조의 가능성과 욕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역주민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역문화의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도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정해서 지역문화의 창조 및 지역간 문화 격차의 해소에 관심을 표현했다.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선교공동체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의 발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도록 부름받은 선교공동체다. 지역교회는 지역문화의 발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킴으로써, 교회가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역교회들은 지역사회나 지역주민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심지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사회적 관심은 주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정의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문화에 대한 문화선교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기독교계 안에서도 일찍부터 문화가 지닌 신학적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문화신학이나, 한국의 전통문화가 지닌 신학적 의미를 연구하는 토착화 신학,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선교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들이 지역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연구되지는 않았다. 정부가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정해서 활발한 논의를 했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는 이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넘어가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 연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회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문화선교적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지역교회의 문화선교적 과제를 탐색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II. 지역문화(local culture)란 무엇인가?

'문화'라는 개념만큼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의적인 개념도 없다. 흔히, 문화라고 하면 예술활동을 떠올리지만 광의적 의미에서 문화는 인간의 일상적 생활방식 전체를 의미한다. 문화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행동과 사상에 영향을 주는 가치체계와 규범이다.

본래 모든 문화는 특수한 지역적 상황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되는 토착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 특히 지역문화란 "일정 지역의 주민이 오랜 세월 속에서 서로 결합하여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 놓은 특징적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다.[1] 지역문화는 지역적 특성과 자생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주민의 의식을 지배하여 생활양식과 행동을 발전적 양태로 표출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2]

1) 정인성, "지역문화와 지방자치", 『지역사회개발연구』20집 2호 (1995.12), 7.

지역문화를 논할 때 언급되는 '지역'이란 개념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으로서 사회, 경제, 정치가 전개되는 장(場)을 가리킨다. 따라서 지역을 단순한 지리적 의미의 공간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지역은 정치, 경제의 물질적 측면과 자연환경의 자연적 측면, 그리고 문화의 상징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에 기초해서 모든 지역을 중심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3] 그것은 중앙중심의 질서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지역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지역민이 문화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세계화시대에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한편, 지역문화라는 개념은 '지방문화'라는 개념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문화라는 개념은 중앙의 문화인 서울문화와 대비하여 하위문화를 의미하는 차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문화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으므로 지방문화라는 개념은 지역문화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는 중앙도 한 지역이고 지방도 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문화라는 개념은 '향토문화'라는 개념과도 차이가 있다. 향토문화가 특정한 향토에서 자생하여 향토성을 가지는 문화로서 과거의 전통성을 강조한다면, 지역문화란 향토성을 바탕으로 하되 전통에만 매달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문화를 가리킨다.[4]

요약하면, 지역문화란 지역주민의 일상문화로서 향토성 및 전통성, 그리고 지역의 주민 사이에서의 동질성에 기초하여 지역주민의 결집력을

2) 정인성, "지역문화와 지방자치", 11.
3) 문옥표,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의 활성화", 『정신문화연구』18권 2호(통권 59호, 1995), 95.
4) 정인성, "지역문화와 지방자치", 10.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를 일컫는다. 지역문화는 지역주민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의 토대를 제공한다. 지역문화가 발전하게 되면 세계화로 인한 문화 제국주의의 위협 속에서도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

III. 지역문화 위기의 원인들

지역문화를 위협하는 첫 번째 요소는 지구화다. '지구화'(Globalization) 혹은 '세계화'는 우리시대의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구화'란 정치·경제·문화가 하나의 지구적인 울타리 안으로 동질화되어지는 과정이며, 또한 분절된 영토에 기초한 국민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단위체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5] 그런데 지구화 개념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 경제행위에 있어서 국경의 한계를 넘어서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시장경제의 세계화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하는 거대한 자본의 힘으로서, 나라마다 국경이 없어지고 민족마다 삶의 양식이 획일화되어갈 위험이 있다.

지구화는 비록 경제영역으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문화적 영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위성방송이나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매체의 등장은 문화적 차원에서 지구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들 뉴미디어들은 공간적 경계를 넘어 정보와 의미의 교류를 세계화시킴으로써, 이른바 '지구촌'(global village)을 만들어 가고 있다. 말하자면 문화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의 공시공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5) 조명래, "'지구화'의 의미와 본질", 『공간과 사회』 제4호 (1994), 34-43.

하겠다. 지구화시대에 문화는 한편으로는 보편화, 동질화, 획일화되어 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화, 이질화, 다양화되어 간다.[6] 이른바 문화제국주의적 시각과 문화다원주의적 시각이 병존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문화제국주의적 시각이 문화의 다원성과 주체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문화 역시 경제나 정치적 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월러스타인(I. Wallerstein)의 말대로 "문화란 언제나 힘을 가진 자의 것이었으며, 세계문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7] 문화제국주의는 서구 이외의 문화들을 적대시하고 경멸한다.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만이 '문화'이고 나머지는 '민속'(民俗)으로, 유럽의 노래는 '음악'이고 기타 지역은 '민족음악'으로, 유럽인의 신앙은 '종교'이고, 기타 지역의 신앙은 '미신'으로 평가절하 되고 있다.[8] 심지어 민족문화라는 것도 관광수입을 위해 점점 더 서구인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전통적인 것이나 토속적인 것을 상품화 하도록 압력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 문화의 탈역사화나 전통의 탈맥락화가 생겨날 수 있다.[9]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문화적 가치와 상징이 그것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문화적 가치와 상징을 흡수해 버릴지, 반대로 그렇게 수입된 문화적 가치와 상징이 민족문화나 지역문화에 의해 소화될 것인지 그것은 결국 지역의 문화적 태도와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둘째,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도 지역문화의 위협요소가 된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의 생산 및 놀이와

---

6) 공유식, "세계화와 한국문화",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나남출판, 1995), 482.

7) 공유식, "세계화와 한국문화", 483 재인용.

8) 손규태 역, "역자서문" 『성서의 정치경제학』(한울, 1997), 12.

9) 박영은, "세계화의 지형변화와 문화적 갈등", 『정신문화연구』18권3호(통권 60호 1995), 114.

관련하여 전통문화가 형성되고 유지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초 근대화를 목표로 한 개발독재가 진행되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산촌의 전통적 촌락공동체가 해체됨과 동시에 지역문화도 대부분 붕괴되었다. 도시화 과정에서 전통적 지역공동체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주민의 노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민이 떠나고 지역공동체마저 붕괴된 상황에서 지역문화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 새롭게 형성된 지역공동체의 문화가 발전한 것도 아니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새롭게 생성된 도시들 역시 높은 인구 이동성 및 계층의 이질성으로 인해 공동체 형성과 지역문화 창조에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중앙집권적 정치와 경제 체제 역시 지역문화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체제는 수백 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문화마저도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서울과 지방 사이에 커다란 문화적 격차가 생겨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획일주의가 생겨나고 말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문화집중은 문화 인프라의 현실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공연시설, 전시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설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문학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공연예술활동을 포함하는 문화예술활동 면에 있어서도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0]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조성액을 보더라도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6.7%를 차지하여, 나머지 33.3%를 놓고 전국의 지방 도시들이 나눠 갖는 형편이다.[11]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문화집중으로 말미암아 지역문화의

10) 정인성, "지역문화와 지방자치", 20-24.

11) 김원자, 『지역문화의 새지평: 이제 삶의 문화를 이야기하자』(도서출판 다지리, 2002), 54.

대부분이 중앙문화의 '아류(亞流)'로 생각되고 있으며, 서울문화의 모방에 급급한 현실이다.[12]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문화와 중앙지향의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중앙에 대한 지방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그 스스로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주체의식을 지녀야만 한다.

IV.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문화의 현실

1. 지방자치와 지역문화

우리나라는 1995년 민선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시작한 이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지방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의 일을 지방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을 위해 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은 정치, 사회, 문화에 있어 새로운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 이제 지역은 중앙중심의 산업주의, 군사주의, 통제적 행정주의에 대항할 독자성과 정체성의 기반이며, 다양한 생활양식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13] 물론, 중앙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곧 지방의 민주화나 지방의 세계화를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적이고, 문화는 중앙을 흉내 내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의사소통 관계, 즉 지역문화가 발전해야만 한다.[14] 지방자치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

12) 문옥표,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의 활성화", 94.
13) 윤형근, "새로운 지역문화 운동", 정문길 외, 『삶의 정치. 통치에서 자치로』 (대화출판사, 1998), 227.

한 목적을 지니며, 지역문화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때 비로소 활성화된다. 이처럼 지방자치와 지방문화는 불가분리의 관계로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문화와 향토축제

지역의 축제들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공동체적 역량의 총화로서 '지역문화의 꽃'으로 불린다. 지역의 향토축제가 가져다주는 유익은 여럿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문화적인 면에서 문화에 대한 감상, 체험, 표출의 기회를 주며, 지역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을 주며,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방 도시의 세계화에 공헌한다.[15]

우리나라에는 오래 전부터 강릉의 단오제, 충남 은산의 별신제, 경북 자인의 한장군제, 전북 남원의 춘향제, 그리고 광복 이후에 생긴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제, 밀양의 아랑제 등이 있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는 속초의 설악제, 삼척의 죽서문화제, 영월의 단종문화제, 충주의 우륵문화제, 온양의 아산문화제, 여수의 진남제, 장흥의 보림문화제, 안동의 민속축제, 진해의 군항제, 제주의 한라문화제 등이 새로이 생겨났다.[16]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단합을 위해 다양한 축제들을 기획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생긴 축제들 가운데에는 금산의 인삼축제, 충주의 세계무술축제, 이천

14) 이각범, "세계화와 지방화: 그 이론적 연계", 『정신문화연구』18권2호(통권 59호, 1995),13.

15) 이홍재, "문화축제와 지형활성화", 정근식.이종범 편역, 『문화도시 만들기: 이론과 구상』(경인문화사, 2001), 283-285.

16) 서연호, "축제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모색", 가석 홍일식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21세기와 한국문화』(나남출판사, 1996), 89-90.

의 도자기축제, 안동의 국제 탈춤 페스티발, 강화의 고인돌축제, 장성의 홍길동축제, 전주의 세계소리축제 등이 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축제가 80년대에는 123개에 불과했으나 90년대에는 200개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지금은 1천 여 개나 된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축제가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창조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 향토축제의 문제점들

오늘날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향토축제들이 지닌 공통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주의 경향이다. 본래 향토축제란 공동체에 기초한 문화행사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축제의 정신은 우주적인 질서의 인식과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신성을 자각하는 것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성스러운 인격과 가치관, 생산성을 회복하는 일이다.[17]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당수의 축제들은 이런 정신적이고 사회적 목적과는 거리가 먼 채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관심사만 강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의 삶의 질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축제만 염두에 두게 되어 흥행성이 없는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는 무시를 당하고 있다. 게다가 문화가 상품화디면서 소비의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을 배제시키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

둘째, 몰개성적인 획일주의 경향이다. 향토축제는 지역의 정서와 전통 및 자연환경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지역적 특성과 개성을 드러내야 한다. 한 예로, 전남 진도의 영등제는 매년 봄에 갯벌이 드러나 바다가 갈라질 때 열리는데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가 잘 드러나고 있다.

---

17) 서연호, “축제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모색”, 97

그리고 안동의 정월 대보름날 부녀자들만 참여하는 놋다리밟기나 하회마을에 전승되었던 하회별신굿놀이처럼 지역의 전통과 원형이 잘 드러나는 축제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 생겨난 지역축제들 상당수는 그 지역의 전통과 개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향토축제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 지역 출신 중에서 역사적으로 이름을 기릴만한 인물에 대해 제사를 지낸 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속놀이(줄다리기, 농악, 씨름, 널뛰기 등), 체육대회, 공연행사(가수초청공연, 노래자랑대회 등), 백일장, 특산물과 연계한 향토미인 선발대회(000 아가씨 선발대회), 그리고 각종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주변에는 먹거리들을 위한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선다. 전국 어디서나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셋째, 관(官)주도적 경향이다. 지역문화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가와 자율성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역예술인, 지역문화인,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나는 상당수의 향토축제는 관주도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행사의 주최가 형식상으로는 지역문화원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행정관서가 주도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향토축제 가운데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되고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18] 이것은 문화정책 및 투자가 행정관서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다. 하지만 그 같은 관주도적 향토축제는 우선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지역의 정서와 전통이 상실된 획일적 내용이 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과시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벤트 중심이 된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막아서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축제가 되고 만다. 그 외에도 지역

18) 문옥표,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의 활성화", 99.

축제가 지니고 있는 중앙에 대한 저항의식이 소멸되어 결국에는 국가에 의한 지역문화의 통제수단이 될 수도 있다.

넷째, 무분별한 전통문화의 재현이다. 전통문화란 지역의 축제를 포함하여 지역 출신의 역사적 인물, 유적지, 민속 등을 포함한다. 전통문화에는 사투리와 방언을 포함하는 '언어문화', 의식주에 나타나는 '생활문화', 노래·전설·탈춤·농악·민속놀이를 통해 표현되는 '예술문화', 그리고 속담과 관습에 나타나는 '사상문화'가 포함된다.[19] 과거 일제시대에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유신독재 아래서는 저항문화로서 대학가와 운동권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부활운동이 있었다. 앞으로는 지역문화운동 차원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부흥운동이 필요하다.[20]

하지만, 전통문화의 복원이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화의 창조란 전통문화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여 현대인에게도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는 새로운 문화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단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재현하는 일에만 관심할 경우 전통은 현실로부터 유리되고 박제화 되며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고 만다. 따라서 전통문화는 현대생활에 맞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21] 그리고 전통적인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한 예로 지역축제 때마다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특산품 이름을 붙인 <00 아가씨 선발대회>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 여성을 상품화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세계관적 대안으로 증산도, 원불교, 천도교는 물론 샤마니즘까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 역시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22] 그런 의미에서 전통문화란 '과거

19) 김헌선, "농촌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방향", 『농촌생활과학』 84호 (2000/12), 44.
20) 윤형근, "새로운 지역문화 운동", 정문길 외, 『삶의 정치』, 228.
21) 문옥표,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의 활성화", 97.
22)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가 없다고?』(사계절, 2000), 101-179.

의 문화가 아니라 계승된 오늘의 문화요 창조된 미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23]

한편, 세계성을 몰각한 전통문화나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는 자칫 소아적 독선에 빠져 복고적, 보수적, 폐쇄적, 배타적 아집으로 인해 자신을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단절시킬 위험이 있다.[24] 따라서 전통문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토착적인 것을 강조하되 그것이 세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V.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운동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은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는 문중, 계, 두레, 향약과 같은 공동체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본의 식민정책에 의해 파괴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새마을운동과 같은 관주도의 운동에 의해 주민의 자발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새마을운동은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변화는 가져왔으나 공동체 형성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고 경쟁이 생활의 원리가 되면서 공동체 형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 사이버공동체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문화는 지역주민이 공동체의식을 가질 때에만 발전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이란 공동체 구성원간의 사회적 집합의식과 소속감 및 친밀감을 의미한다.[25] 또한 공동체의식은 이러한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개

23) 장정룡, "지방화 시대의 지역전통문화의 발전", 『농촌생활과학』84호(2000/12), 58.
24) 인권환, "전통문화론의 반성과 그 21세기적 과제", 가석 홍일식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40.
25) 김경준, 김성수,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23집 2

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의식이다.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필요한 요소로는 친밀, 정보, 공동행동이 포함되는데, 친밀한 유대관계에 기초하여 서로에 대해 혹은 집단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게 될 때 공동체의식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로 인해 파괴되는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려는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운동도 공동체의식 형성에 도움이 된다.[26]

지역의 공동체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주민간의 모임을 통해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27] 이 때 과제는 어떻게 전통 속에서 새로운 지역적 상징체계들을 찾아내서 현대에 맞도록 재해석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어떻게 그러한 상징체계를 통하여 지역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축제는 공동체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지역축제가 지역 정체성의 상징들을 집약적으로 표현하여 주민을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지역문화는 기존의 전통적 상징들(전통문화)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통합적 상징을 제시함으로써도 가능하다. 지역축제가 성공하려면 축제를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행정관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지역축제는 '보여주는 축제'가 아니라 '참가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개념을 보다 개방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 말하자면, 지역에

호(1998/12), 215.

26) 김경준, 김성수,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216.

27) 김경준, 김성수, "지역사회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227.

거주하는가 보다는 지역의 관심사를 공유하는가 하는 데 강조점을 둘 때 인구이동이 심한 상황에서도 공동체의식과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28]

VI.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신학적 과제

1. 지역교회(local church)로서 교회론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보편적이고 세계적이지만 동시에 특정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교회다. 지역교회로서 교회는 특정한 지역사회 속에 위치하고, 지역사회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교회는 신자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모임일 수도 있고,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예배모임일 수도 있고, 여러 지역의 신자들의 예배모임일 수도 있다. 교회는 공간과 시간을 뛰어 넘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몸이며 우주적 교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서는 물론 이후 첫 3세기 동안에 나온 문헌들 역시 지역교회로서의 교회가 강조되고 있다.[29] 신약성서에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는 여러 장소의 여러 공동체를 가리키며 때로는 단수로 때로는 복수로 혼용되어 나타난다. 신약성서에서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관련해서 이름이 붙여지고 있다. 겐그레아의 교회(롬 16:1), 고린도의 교회(고전 1:2), 갈라디아의 교회(갈 1:2) 등처럼 말이다. 때로는 그 범위가 보다 더 확대되어 유대와 길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행 9:31), 마케도니아의 교회,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모두가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

28) 문옥표,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의 활성화", 101.

29) S. Grenz, 신옥수 역, 『조직신학』(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3), 671.

특정 지역에 모인 신자들의 가시적인 교제로서 지역교회는 계약백성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다. 각각의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축소판이다. 그렇다고 하여 지역교회가 보편교회의 한 부분이나 하부단위라는 의미가 아니다. 지역교회는 그 자체로 참 교회다. 즉, 지역교회는 보편교회에 속하면서 동시에 바로 교회 자체다.[30] 이는 지역교회가 보편교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사명, 동일한 약속을 받기 때문이다. 모두가 하나의 신앙을 갖고 하나의 세례와 하나의 성찬을 갖고 있다. 개별교회가 모여 전체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전체교회가 나뉘어 각각의 지역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31] 개별적인 지역교회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되고 완전한 교회다. 개별적 지역교회들은 그 자체로 완전한 교회이지만 동시에 전 지역,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를 형성한다. 그들은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몸을 형성한다. 교회는 다양성을 지닌 개 교회로 존재하며 동시에 전체로서 하나의 교회다.[32]

교회가 자신을 지역교회로 이해할 때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 현실 변화에 따라 교회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대하여 관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문화적, 경제적으로 낙후하게 되어 지역민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자연히 교회도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반면에 지역이 발전하고 살기 좋게 되어 주민이 늘어나면 교회도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말하자면,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는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지역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으로부터 스스로를 주변화 시켜도 안 되지만, 지역을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된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 하면서 세상을 섬기며 이끄는 공동체다.

---

30) 한스 큉,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분도출판사, 1987), 89-90.
31) 한스 큉, 『교회란 무엇인가』, 91
32)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4권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63

교회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교회상을 정립할 때 지역주민들이 교회에 대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려면 교회가 교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가 지역민의 관심사에 함께 동참하고, 교회의 시설을 개방하며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대형교회에 의한 지교회 설립정책은 지역교회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현저히 약화시킴으로써 교회론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33] 그렇게 될 경우 교회가 비록 공간적으로는 지역과 함께한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의미에서는 격리되고, 따라서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2. 문화의 신학

문화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 생활방식으로, 거기에 나타나는 세계관, 가치관, 규범 등이 구성원 사이에 공유되며 또한 학습을 통해 전수되는 것을 가리킨다. 틸리히 (P. Tillich)에 의하면, 인간 삶의 '궁극적 관심'인 종교는 문화에 의미를 주는 실체(the meaning-giving substance)이며, 문화는 그러한 종교의 형식(form)의 총체다.[34] 말하자면, 문화란 인간의 '궁극적 관심의 표현'인 셈이다. 화란의 칼빈주의 신학자 헤르만 도예베르트(H. Dooyeweerd) 역시 종교를 '문화의 뿌리'라고 보고 있다. 그는 모든 문화가 종교적인 '근본 동기'에 의해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 근본 동기는 개인이나 사회의 삶의 기본 방향과 에너지가 된다.[35] 엘리엇(T. S. Eliot)은 문화를 '종교의

33) "특집: 한국교회 '지성전 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기독교사상』(2003/11), 22-106.
34) P. Tillich, 김경수 역, 『문화의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77), 52.
35) 케빈 반후쩌, "세계는 과연 무대로서 적합한가? 신학, 문화 그리고 해석학", D.A.Carson/J. D. Woodbridge, 박희석 역, 「하나님과 문화』(크리스챤 다이제스트,

성육신'으로 본다. 때문에 종교가 사라지면 문화는 보존될 수 없으며, 동시에 문화가 없이는 종교도 보존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는 만일 유럽의 문화가 기독교 신앙을 잃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한다.[36] 요약하면, 인간의 일상적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가 결국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 즉 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종교적 문화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문화는 종교적 차원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특히, 대중문화를 살펴보면 문화가 인간 삶의 궁극적 관심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피상적 관심사나 인간 소외의 표현이라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이 보인다. 문화는 종교적 의미를 상실한 채 하나의 상품으로 변질되고 있다. 도예베르트의 관찰대로, 현대 문화는 이러한 문화의 종교적 성격을 부정하고, 문화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의 시대에 선교란 문화로 하여금 인간의 궁극적 관심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37]

한편, 종교는 자신의 궁극적 관심을 문화라는 그릇을 통해 드러내며, 복음의 씨는 문화라는 토양을 전제로 한다. 그러기에 선교에서 문화를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문화위임' 혹은 '문화명령'(창 1;26-28)은 문화의 발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일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는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독교문화'라고 할 때 기독교적 예술, 말하자면 꼭 십자가나 교회와 같은 종교 형식적 요소들이 들어가는 그림이나 음악이라는 협소한 의미로 이해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독

2001), 39-40.

36) 케빈 반후쩌, "세계는 과연 무대로서 적합한가?" 41-42.

37) 장성배, "문화의 시대 속에서 기독교적 대답의 한 시도", 『기독교사상』(2000/4), 22.

교문화를 교회 안의 종교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문화'로 축소해서도 안 될 것이다.

3. 토착화신학

모든 지역문화는 그 지역만의 토착문화다. 지역교회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지역의 토착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유감스럽게도 과거 외국 선교사들은 한국의 토착문화를 서구문화라는 잣대로 평가하며 '미개한 문화'로 간주했고, 토착적 민간신앙을 '미신'으로 평가절하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구적 생활방식(문화)을 교회를 통하여 소개하고 보급하였다. 선교사들 가운데에는 기독교가 서구문화이며, 선교란 발전한 서구문화를 이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그 결과 한국기독교는 전통문화에서 유리되고 말았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선교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래종교'라는 인상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복음화'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한국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신학계에서도 토착화 논의가 있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윤성범의 '성(誠)의 신학'이나 유동식의 '풍류신학'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김광식이 옳게 지적했듯이 토착화 신학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과제다.[38]

물론, 전통적인 것이 무조건 좋다거나, 우리 것은 무조건 좋고 남의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국수주의적 문화이해도 버려야 한다. 외래적인 것이라도 이미 우리 것처럼 익숙해진 것들은 한국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통적인 것이나 토착적인 것들을 변화하는 우리 시대에 맞도록 끊임없이 재창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직도 논쟁 중에 있는 조상제사

38) 김광식, 『토착화와 해석학』(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80.

와 장묘문화에 대한 논의는 물론 예배의식에서의 전통문화의 수용(국악 찬송가 등)이나 지역의 설화나 전설, 민담, 속담 등과 같은 구비전승과 성서 이야기를 해석학적으로 연결하는 신학적 노력들도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적인 교회건축, 예배의식, 교회미술, 교회절기의 개발에 관심해야 한다.

4. 지역사회봉사의 신학

교회는 자신의 생존이나 팽창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며, 기독교인들이 모여 즐기는 친교공동체만도 아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며 동시에 세상을 섬기도록 '파송받은 공동체'다. 본회퍼(D. Bonhoeffer)는 교회를 '타자(the others)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로 이해한다. 바르트(K. Barth) 역시 하나님께서 세계를 위해 존재하시듯이 교회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 존재할 것을 주장했다.[39]

한국교회는 선교초기부터 교육선교 및 의료선교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했으며, 근대적 시민교육을 통해 사회발전을 도모했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통해 국가에 봉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당시 교회는 낙후한 농산촌 지역개발을 위해 농사개량법을 지도하고 문맹타파를 위해 힘을 쏟았다. 그 외에도 성경번역과 출판, 온갖 사회의 구습과 악습을 개혁함으로써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했다.[40]

지역사회 봉사는 지역교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며 지역주민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전인적인 존재로 성숙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며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문제나 교통문

39) D. L. 밀리오리, 장경철 역, 『기독교 조직신학개론』(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281-283.
40) 이만열, 『한국기독교사 특강』(성경읽기사, 1989), 100-116.

제, 그리고 교육문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들이 포함된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불평등과 격차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도 포함된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때, 교회는 참다운 의미의 지역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럴 때 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며, 지역주민들은 비록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그 결과 지역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는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며, 지역교회에 대한 선교는 더욱 효과적이 된다. 교회 내적으로 지역사회 봉사는 성도들의 생활 속의 신앙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평신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교회에 속한 교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공동체로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5. 문화선교의 신학

문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교계와 신학계 안에서도 문화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린 예배나 문화학교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도되면서 문화선교가 논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선교라는 개념 규정이 어려운 이유는 이 개념이 논쟁중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한 문화가 선교에 있어 문제인 동시에 해답이기 때문이다. 즉, 문화는 기독교에게 도전해 오는 외부적 문제인 동시에 그것에 대답해야 하는 내부적 과제로서 양가성(ambivalent)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41] 말하자면, 문화란 기독교의 맥락(context)이며 동시에 내용(content)이다. 문화는 선교의 도구이기도

41) 안교성, "문화선교의 전제와 발전방향", 문화선교연구원 편,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95.

하지만 동시에 선교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복음이 생활화될 때 결국은 복음의 문화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선교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문화에 대한 복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42] 임성빈은 문화선교를 "문화의 모든 영역을 복음적 정신과 실천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독교문화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는 선교적 실천"이라고 규정한다.[43] 문화선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것이며 또한 구원의 사역을 현장화하는 일이다.

문화의 시대에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가난한 자'(the new poor)는 문화적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문화 창조의 힘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문화의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 사셨다고 하는 것은 문화적 소외와 차별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는 문화적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는 도시의 소외 지역과 농산촌 지역에 대해 선교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6. 에큐메니칼 신학 및 종교간 협력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지역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지역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종교단체들,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할 때라야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복잡한 목표다. 한 지역 안에는 특정한 교단만이 아니라 교단이 다른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한다.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속한 모든 기독교인의 참여와 협력이

42) 문화선교연구원 편,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 4.
43) 임성빈, "기독교적 문화관의 형성을 향하여", 문화선교연구원 편,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 13.

필수적이다. 기독교가 지향해야 할 선교가 개교회의 성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문화 창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다면, 지역사회에 관심하는 모든 교회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교세 확장을 위한 지역교회간의 경쟁과 갈등은 기독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킴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교회들이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면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하나의 교회'라는 새로운 기독교문화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교회의 에큐메니칼 협력은 교회간 및 교파간의 대화와 협력을 넘어 지역의 종교단체들 간의 대화와 협력의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통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불교나 유교와의 대화의 기회를 열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교회는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관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종 지역사회단체들과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도 관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문화선교 활동이 활발한 교회들은 예외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적, 행정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VII.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교회의 실천적 과제

지역교회는 교회 내적인 교인들의 문화적 욕구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지역사회의 문화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적극 공헌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지역문화의 발전에 대한 지역교회의 관심이다. 지역교회는 지역민의 영혼

만이 아니라 문화, 즉 지역민의 삶의 모든 영역과 일상(日常)에 관심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은 물론 공간(예배당, 교육관, 식당, 주차장, 봉사센터 등)과 시설, 재료와 장비, 기타의 물적 자원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선교 프로그램의 대체적 방향과 목적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44]과 유명 예술가의 창작품이나 공연을 포함한 고급문화가 아니라 지역의 보통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창조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목회자는 문화적 존재로서 목회자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사역을 포함하는 목회관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한편, 교회는 문화사역 혹은 문화선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문화선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관심해야 한다. 전문적인 문화사역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교단적 혹은 초교파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는 백화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센터와는 다른 기독교적 특수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대상에 따른 특성화도 필요하다. 말하자면, 교회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강조점을 청소년, 장년, 노인, 주부, 외국인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한 교회가 모든 분야를 다 맡기 보다는 이웃해 있는 교회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 원칙에 기초하여 개교회의 문화선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가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교회의 절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를 전통문화와 조화시키려는 노력이나 전통적인

44) 창천교회의 '문화쉼터'가 교회가 위치한 신촌의 대학가에 관심했고, 국수교회의 경우 농촌사회를 염두에 두고, 일산의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일암교회가 어린이만을 위한 전문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절기의 기독교적 이해를 위한 노력이다. 구약성서 시대의 3대 순례절기로 알려진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은 농경사회의 파종 및 추수와 관계된 축제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에서 농촌의 24절기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이해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예배와 절기 만들기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45]

한편, 최근 지역의 불교 사찰에서 산사(山寺)음악회나 템플스테이(Temple Stay) 프로그램은 지역민은 물론 외국 관광객에게 상당한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전통문화 체험과 깊게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교회에서 여는 음악회나 문화활동은 전통문화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국악찬송이나 판소리공연처럼 전통문화를 적극 수용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46]

한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교회 건물을 보존하는 일이나 예술성이 높은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도 교회가 지역문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대 한국교회의 교회건축은 문화적으로 감각이 상당히 떨어진 듯하다. 교회 내부의 인테리어 역시 신학적, 미학적 가치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교회당 역시 중세 서양에서 만들어진 고딕양식이 대부분이며, 외관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교회당도 상당수다.[47]

그 외에도 교회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와 관계된 컨텐츠만이 아니라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를 알리고 소개하는 일(지역문화재, 자연환경, 관광자원, 문화행사 소개)도 교회와 지역사회간의 긴

45) 이정배, "24절기 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1)", 『농촌과목회』14(2002 여름), 62.
46) 문성모, 『민족음악과 예배』(한들, 1997), 향린국악찬송편집위원회 편, 『향린국악찬송』(한울, 2000)
47) 윤바울, 『한국적 교회건축을 찾아서』(한들출판사, 2000), 57-101.

밀한 관계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개교회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이는 교회가 결국에는 지역사회와 밀접히 관련되어 설립되고 발전되기 때문이다. 개교회사 서술에서 단지 교회 내적 사건이나 사실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민과의 관련성 속에서 역사 서술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기독교문화유적을 발굴하거나 개발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은 물론 신앙인들의 기독교 신앙훈련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48] 가톨릭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훈련하고 학습하듯이 개신교 역시 각종 기독교문화유적을 신앙훈련과 학습과정에 통합시키는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하겠다.

KCI

48) 박은배, 『기독교 유적 답사기』(국민일보, 2000)

참고문헌

가석 홍일식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21세기와 한국문화』(나남출판사, 1996)

김광식, 『토착화와 해석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4권(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나남출판, 1995)

김경준/김성수,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집2호 (1998/12)

김원자, 『지역문화의 새지평: 이제 삶의 문화를 이야기하자』(도서출판 다지리, 2002)

김태현, 『희년맞이 국수교회 이야기』(한들, 2002)

김헌선, "농촌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방향", 『농촌과생활과학』84호(2000/12)

문성모, 『민족음악과 예배』(한들, 1997)

문옥표,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의 활성화", 『정신문화연구』 59호(1995/18권2호)

박영은, "세계화의 지형변형과 문화적 갈등", 『정신문화연구』60호(1995)

박은배, 『기독교 유적 답사기』(국민일보, 2000)

서연호, 서연호, "축제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모색", 가석 홍일식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21세기와 한국문화』(나남출판사, 1996)

안교성, "문화선교의 전제와 발전 방향", 문화선교연구원편,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윤바울, 『한국적 교회건축을 찾아서』(한들, 2000)

윤형근, "새로운 지역문화운동", 정문길 외, 『삶의 정치. 통치에서 자치로』(대화출판사, 1998)

이각범, "세계화와 지방화: 그 이론적 연계", 『정신문화연구』59호 (1995)

이만열, 『한국기독교사 특강』(성경읽기사, 1989)

이정배, "24절기 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1,2), 『농촌과목회』14-15호(2002/여름, 가을)

인권환, "전통문화론의 반성과 그 21세기적 과제", 가석 홍일식 선생 회갑기념논문

집 편집위원회, 『21세기와 한국문화』(나남출판사, 1996)
임성빈, "기독교적 문화관의 형성을 향하여", 문화선교연구원편,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장성배, "문화의 시대 속에서 기독교적 대답의 한 시도", 『기독교사상』(2000/4)
장정룡, "지방화 시대의 지역전통문화의 발전", 『농촌과생활과학』84호(2000/12)
정문길 외, 『삶의 정치. 통치에서 자치로』(대화출판사, 1998)
정인성, "지역문화와 지방자치", 『지역사회개발연구』 20집2호(1995/12),
조명래, "'지구화'의 의미와 본질", 『공간과사회』4호(1994)
정근식/이종범 편역, 『문화도시 만들기:이론과 구상』(경인문화사, 2001)
최준식, 『우리에게 문화가 없다고?』 (사계절, 2000)
향린국악찬송편집위원회 편, 『향린국악찬송』(한울, 2000)
S. 그렌츠, 신옥수 역, 『조직신학』(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D. L. 밀리오리, 장경철 역, 『기독교 조직신학개론』(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D. A. 카슨/J. D. 우드브리지 편, 박희석 역, 『하나님과 문화』(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1)
H. 큉,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분도출판사, 1987)
P. 틸리히, 김경수 역, 『문화의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77)
특집: "한국교회 '지성전 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기독교사상』(2003/11)
특집: "농촌의 전통생활문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농촌과목회』14호 (2002여름)

KCI